

2023년 8-2

KIET 경제·산업동향

2023년 8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2023년 7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일본 2분기 성장률 1.5%, 유로존 경제 0.3% 성장률 기록

- 미국은 7월 실물지표들의 증가세 확대와 체감·선행지수 약세 등으로 인한 경제지표들의 혼조세 속에 2분기 성장률이 투자 확대에 힘입어 2.4%로 상승
- 일본은 2분기중 내수 약세에도 순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020년 4분기 이후 최고치 수준인 1.5%를 기록하고, 유로존은 역대 최대국인 독일의 성장 정체에도 프랑스의 성장 확대(0.3%) 등으로 전기비 0.3% 성장
- 중국은 지난 7월 내·외수 지표들의 부진세가 이어진 가운데 2분기 성장률 부진과 디플레 우려 등으로 인해 인민은행이 단기금리를 2개월 만에 전격 인하
- 달러화는 8월초 주요 신용평가사들의 美 신용등급 강등 여파 등에도 미국의 견조한 실물지표와 美 국채금리 상승, 연준의 추가 긴축 경계감 등으로 강세
- 유가는 8월 들어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 연장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이후, 미국 원유재고 감소에도 중국경제 둔화 우려와 美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

□ 국내경기 : 6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1%, 소비·투자 동반 증가세

- 6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감소 전환(전월비 -1.0%)한 반면에, 서비스업 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0.5%)하면서 전월에 이어 소폭의 추가 상승(0.1%)
 - 소매판매는 내구재 판매가 상당폭 증가(4.7%)한 데 힘입어 1.0% 증가하고, 설비투자 역시 기계류 감소에도 운송장비 증가에 힘입어 0.2% 증가

□ 금 용 : 7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확대, 8월 중순(8월 14일 ~ 25일) 금리 상승 및 원/달러 하락

- 7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계절요인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주택 담보대출이 전월 수준을 거의 유지한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8월초 주요 신평社들의 美 신용등급 하향 여파로 美 금리와 동반 상승하고, 중국의 금리 인하에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상승
- 원/달러 환율은 8월 들어 美 신용등급 강등과 中 부동산 위기 등으로 1,340원대까지 상승하고, 中 금리 인하와 美 금리 반락 등으로 1,320원대로 하락

□ 산업별 동향 : 6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5.8%, 서비스업생산 +3.5%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 전자부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1차금속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5.8% 감소
 - 제조업ICT는 두 자릿수 감소율 지속, 중공업과 경공업에서도 감소세 지속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 정보통신 등에서 감소한 반면, 도소매, 운수·창고,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 등 업종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3.5% 증가

□ 고용 : 7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0.7% 증가

- 지난 7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동반 확대된 가운데 SOC·기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하락(1.2% → 0.7%,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

□ 수출입 : 7월 수출 -16.4%, 수입 -25.4%, 무역수지 17억 달러 흑자

- 지난 7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6.4% 감소한 503억 달러, 수입도 25.4% 감소한 487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17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IT업황의 부진 지속과 계절적 요인(하계휴가) 등의 영향으로 일부 품목(자동차·기계·가전)을 제외한 석유제품·석유화학·반도체·선박 등 다수 품목에서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지역별로는 중국·베트남 등이 對세계 수입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체 기준 전년동월비 16.4% 감소

1. 해외경제

□ 미국 : 7월 실물지표 강세, 2분기 성장률 2.4%로 시장 예상치 상회

○ 7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의 증가세가 동반 확대된 반면, 체감지표들의 혼조와 선행지수 하락 등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이 여전히 혼조. 2분기중 소비 둔화에도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대 성장률로 시장의 예상치(1.8%)를 상회

- 산업생산은 제조업(전월비 0.5%)을 비롯해 광업(0.5%)과 유틸리티(5.4%) 등의 동반 증가에 힘입어 3개월 만에 증가(1.0%)하고, 소매판매는 온라인 할인행사에 따른 판매(1.9%) 호조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0.7%)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여전히 기준치(50)를 밑도는 수준이나, 3개월 만에 소폭 상승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160.0)와 미래 기대지수(88.3)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117.0)
-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증가세가 소폭(전월비 18.7만 개)임에도 실업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4월부터 16개월 연속 하락세
- 美 경제가 2분기 소비 둔화(전기비 1.6%)에도 투자 확대(10.8%)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전년동기비 2.6%, 2022년 1분기 이후 최고치)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5.9	2.1	2.6 (0.9)	2.0 (1.8)	2.4 (2.6)				
산업생산 (IT생산)	4.4 (9.7)	3.4 (2.4)	-0.6 (-0.3)	-0.1 (-1.4)	0.0 (4.1)	0.5 (2.2)	-0.4 (0.4)	-0.8 (2.1)	1.0 (1.5)
내구재수주	18.4	8.3	0.5	-0.1	5.4	1.2	2.0	4.4	-5.2
소매판매	18.2	9.7	0.1	1.1	0.0	0.4	0.7	0.3	0.7
소비자물가	4.7	8.0	1.0	0.9	0.7	0.4	0.1	0.2	0.2
실업률(%)	5.4	3.6	3.6	3.5	3.6	3.4	3.7	3.6	3.5
무역수지(10억US\$)	-841.6	-951.2	-213.5	-201.0	-208.2	-74.4	-68.3	-65.5	-
ISM 제조업지수 ¹⁾	60.6	53.5	49.2	47.1	46.7	47.1	46.9	46.0	46.4
소비자신뢰지수 ²⁾	112.0	104.5	104.2	104.5	105.4	103.7	102.5	110.1	117.0
경기선행지수 ³⁾	113.8	114.8	111.6	109.4	106.9	107.6	106.9	106.2	105.8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6월 실물지표 혼조, 2분기 순수출 확대로 실질GDP 1.5% 성장**

- 6월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수입의 대폭 감소(-12.8%) 여파로 무역수지가 2년여 만에 흑자를 기록. 지난 2분기 중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에 따른 순수출 확대 등의 영향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020년 4분기 이후 최고치인 1.5%를 기록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2	1.0	0.0	0.9	1.5				
광공업생산	5.8	0.0	-1.7	-1.8	1.4	0.3	0.7	-2.2	2.4
민간기계수주	6.0	5.5	-4.7	2.6	-3.2	-3.9	5.5	-7.6	2.7
소매판매	2.0	2.6	1.2	2.5	0.5	0.3	-1.1	1.4	-0.6
소비자물가	-0.2	2.5	1.1	0.5	0.7	0.3	0.6	0.0	0.2
실업률(%)	2.8	2.6	2.5	2.6	2.6	2.8	2.6	2.6	2.5
무역수지(10억엔)	-1,784	-19,966	-5,662	-5,185	-1,775	-759	-436	-1,382	43
경기선행지수 ¹⁾	114.3	112.0	109.7	108.3	108.7	108.0	108.1	109.1	108.9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중국 : 7월 내·외수 지표 부진세, 인민은행 단기금리 2개월 만에 인하**

- 7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동반 둔화세를 보이고, 수출도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등 내·외수 약세가 지속.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6.3%에 그치고, 디플레이(물가 하락) 우려도 제기되면서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단기금리를 2개월 만에 인하(3.45%, 8.21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실질GDP)	9.1	3.0	2.9	4.5	6.3				
산업생산	9.3	3.4	2.8	3.2	4.5	5.6	3.5	4.4	3.7
고정투자(누계기준)	4.9	5.1	5.1	5.1	3.8	4.7	4.0	3.8	3.4
소매판매	12.4	-0.8	-2.7	7.1	11.4	18.4	12.7	3.1	2.5
소비자물가	0.9	2.0	1.8	1.3	0.1	0.1	0.2	0.0	-0.3
수출(달러화기준)	29.6	6.3	-7.6	-1.5	-4.7	7.3	-7.1	-12.4	-14.5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6월 실물지표 혼조, 2분기 역내 실질GDP 성장률 0.3% 기록

- 6월 생산과 소비 등 역내 실물지표들의 혼조세와 인플레이 둔화 속에 경제체감 지수의 하락세가 지속. 2분기중 역내 최대국인 독일의 성장 정체에도 프랑스의 성장 확대(0.3%)와 아일랜드의 성장 강화(3.3%) 등에 힘입어 0.3% 성장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실질GDP)	5.3	3.5	-0.1	0.0	0.3				
산업생산	8.8	2.2	-0.5	-0.3	-1.0	-4.4	1.2	0.0	0.5
소매판매	5.1	0.9	-1.0	-0.2	0.0	-0.4	0.0	0.6	-0.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10.0	8.0	6.2	6.9	7.0	6.1	5.5
무역수지(10억유로)	98.3	-343.4	-62.8	-0.5	4.8	12.2	-7.9	0.2	12.5
경제체감지수 ¹⁾	110.7	101.9	95.3	99.2	96.9	98.8	98.9	96.4	95.3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세 & 유가 하락세

- 달러화는 8월 들어 주요 신용평가사들의 美 신용등급 강등과 연준 관계자들의 금리 인상 기조 마무리 시사 발언 등으로 강보합세를 보인 이후, 미국의 견조한 실물지표와 美 국채금리 상승, 연준의 추가 긴축 경제감 등으로 강세
- 유가는 8월초 미국 신용등급 강등 영향에도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 연장과 美 EIA의 유가 전망치 상향 등으로 상승세를 보인 이후,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에도 중국경제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불안과 美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세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2		2023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25일
엔/달러	138.07	131.12	130.09	136.17	132.86	136.30	139.34	144.31	142.29	146.44
달러/유로	1.0406	1.0705	1.0863	1.0576	1.0839	1.1019	1.0689	1.0909	1.0997	1.0796
미 국채 (10년만기)	3.61	3.87	3.51	3.92	3.47	3.42	3.64	3.84	3.96	4.24
WTI유	80.6	80.3	78.9	77.1	75.7	76.8	68.1	70.6	81.8	80.5
두바이유	80.2	78.7	79.3	81.3	76.8	78.9	72.1	76.1	85.6	86.3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6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1%, 소비·투자 동반 증가세

○ 6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감소 전환(전월비 -1.0%)한 반면에, 서비스업 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0.5%)하면서 전월에 이어 소폭의 추가 상승(0.1%)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3.6%)의 증가에도 자동차(-12.9%), 석유정제(-14.6%) 등에서 상당폭 감소한 여파로 전월비 1.0%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0.6%), 숙박·음식점(0.5%)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소폭 증가(0.5%)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GDP성장률	4.3	2.6*	1.4* (-0.3*)	0.9* (0.3*)	0.9**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6	4.1*	3.3* (-0.5*)	4.6* (0.6*)	1.5** (-0.1**)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3	-0.9*	6.5* (2.4*)	5.9* (-5.0*)	3.9** (-0.2**)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2.8*	-1.8* (1.3*)	1.9* (1.3*)	2.2** (-0.3**)	-	-	-	-
전산업생산지수	5.3	4.6	1.9 (-1.4)	1.2 (0.7)	-0.3* (0.5*)	2.0 (1.1)	-1.0 (-1.3)	-1.1* (1.1*)	1.1* (0.1*)
광공업생산지수	8.2	1.4	-6.4 (-6.1)	-9.7 (-0.9)	-7.4* (3.1*)	-7.6 (4.7)	-9.1 (-0.7)	-7.6* (3.0*)	-5.6* (-1.0*)
제조업생산지수	8.4	1.4	-6.7 (-6.4)	-10.0 (-0.9)	-7.7* (3.4*)	-7.6 (5.1)	-9.3 (-0.7)	-7.9* (3.0*)	-5.8* (-1.1*)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5.8 (0.2)	6.4 (1.2)	2.8* (0.0*)	6.0 (-0.4)	2.9 (-0.4)	1.9* (-0.3*)	3.5* (0.5*)
소매판매액지수	5.8	-0.3	-2.3 (-1.4)	-0.4 (1.1)	-0.3* (-0.4*)	0.1 (0.1)	-1.4 (-2.6)	-0.6* (0.4*)	1.4* (1.0*)
설비투자지수	9.6	3.3	9.6 (-0.2)	-0.5 (-8.8)	-0.5* (2.0*)	1.9 (-2.5)	4.2 (0.8)	-4.5* (3.5*)	-0.6* (0.2*)
건설기성액	-6.7	2.7	6.4 (4.9)	11.5 (4.6)	9.1* (-0.6*)	12.1 (-4.2)	12.4 (1.2)	6.1* (1.1*)	8.9* (-2.5*)
동행종합지수(2020=100)	103.8	108.3	108.9	108.8	110.2*	109.5	110.0*	110.3*	110.4*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0	100.5	100.1	99.2	99.8*	99.6	99.8*	99.9*	99.7*
선행종합지수(2020=100)	106.2	108.7	109.5	109.4	109.9*	109.4	109.4*	109.8*	110.5*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3	100.0	99.5	98.9	98.6*	98.6	98.4*	98.5*	98.8*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전월비 4.7%) 판매가 상당폭 증가한 데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3%)와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1%) 등의 판매가 소폭 감소에 그친 데 힘입어 전월비 기준 증가폭이 확대(1.0%)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0.2%)의 감소 전환에도 운송장비(1.6%)에서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소폭이나마 증가(0.2%)하고,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8.0%) 및 건축(-0.8%) 공사 실적의 동반 약세로 감소 전환(-2.5%)
- 동행종합지수는 소매판매액지수와 수입액 등의 하락에도 광공업생산지수와 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상승(전월비 0.1%)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장단기금리차를 제외하고 재고순환지표와 코스피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경제심리지수 등에서 상승한 데 힘입어 2개월 연속 상승(0.6%)

□ 물가 : 7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3%, 전년동월비 -0.2%

- 7월 소비자물가는 주택·수도·전기·연료(전월비 -1.3%)를 제외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0.8%), 음식·숙박(0.5%), 교통(0.4%)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월비 0.1%(전년동월비 2.3%,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
- 7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이 큰 폭 상승(전월비 -1.3% → 4.7%)하고, 공산품(-0.7% → 0.1%) 가격도 3개월 만에 상승한 데다, 서비스(0.1% → 0.3%) 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전월비 기준 0.3% 상승(전년동월비 -0.2%)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비자물가	2.5	5.1	5.3 (0.4)	4.7 (1.1)	3.2 (0.6)	4.8 (0.3)	4.2 (0.2)	3.7 (0.2)	3.3 (0.3)	2.7 (0.0)	2.3 (0.1)
근원물가	1.8	4.1	4.8 (1.2)	4.9 (1.3)	4.3 (0.9)	4.8 (0.3)	4.8 (0.2)	4.6 (0.4)	4.3 (0.4)	4.1 (0.2)	3.9 (-0.1)
생산자물가	6.4	8.4	6.5 (0.1)	4.4 (0.1)	0.6* (-0.3*)	4.8 (0.2)	3.3 (0.1)	1.6 (-0.1)	0.5 (-0.4)	-0.3 (-0.2)	-0.2* (0.3*)
근원물가	6.0	6.4	4.0 (-0.2)	2.6 (0.3)	0.3* (0.1*)	2.8 (0.3)	1.9 (0.2)	1.0 (0.2)	0.1 (-0.3)	-0.4 (-0.3)	-0.3* (0.1)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7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확대

- 지난 7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계절요인과 은행들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의 영향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비 증가세가 확대
(2023년 6월 +5.5조원 → 7월 +8.7조원, 대기업 +3.8조원, 중소기업 +4.9조원)
 - 대기업 대출이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과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등의 영향으로 전월과 달리 증가세가 확대
 - 중소기업 대출도 일부 은행들의 대출 확대와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7.25일) 관련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
- 회사채는 기업들의 만기 상환 등으로 순상환 기조가 지속
(2023년 6월 -0.8조원 → 7월 -1.1조원)
- CP·단기사채는 기업들의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 기조로 전환
(2023년 6월 -0.5조원 → 7월 +0.6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좀 더 확대
(2023년 6월 +0.4조원 → 7월 +0.6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7월말 잔액
	1~7월	7월	1~7월	7월	1~7월	5월	6월	7월	
■은행 원화대출	57.2	11.3	71.8	12.2	48.4	7.8	5.5	8.7	1,218.7
(대 기업)	3.4	2.3	20.4	5.3	20.3	3.4	2.4	3.8	236.2
(중소기업)	53.7	9.1	51.5	6.8	28.1	4.4	3.1	4.9	982.5
<개인사업자>	23.7	4.2	16.1	2.0	5.0	0.8	0.2	1.5	447.7
■회사채 순발행	15.1	1.5	-1.8	-1.5	4.0	-2.9	-0.8	-1.1	..
■CP 순발행	8.9	0.9	12.5	1.2	3.0	-3.7	-0.5	0.6	59.5
■주식발행	16.5	1.8	19.6	0.7	3.1	0.3	0.4	0.6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 7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기타대출도 전월 수준을 거의 유지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2023년 6월 +5.8조원 → 7월 +6.0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수요 둔화에도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전월에 이어 상당폭 증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3년 6월 +6.9조원 → 7월 +6.0조원)
- 기타대출은 고금리 기조와 분기말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축소
(2023년 6월 -1.2조원 → 7월 -0.01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7월말 잔액
	1~7월	7월	1~7월	7월	1~7월	5월	6월	7월	
은행 가계대출	51.3	9.7	-0.2	-0.3	10.1	4.2	5.8	6.0	1,068.1
▪주택담보대출	36.4	6.0	12.2	2.0	21.9	4.2	6.9	6.0	820.8
▪기타대출	14.8	3.6	-12.5	-2.3	-11.7	-0.05	-1.2	-0.01	246.1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8월 중순(8월 14일 ~ 25일) 금리 상승 & 원/달러 하락

- 국고채(3년) 금리는 8월초 주요 신용평가사들의 美 신용등급 하향(피치 8.1일, 무디스 8.9일)에 따른 美 국채금리의 상승세 등으로 상승하고, 중국의 금리 인하와 한은의 금리 동결에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감 등으로 상승세
(8월 14일 3.747% → 8월 25일 3.789%, +0.04%p)
- 원/달러 환율은 8월 들어 美 신용등급 강등과 中 부동산 우려 재점화 등 여파로 큰 폭 오르면서 지난 5월초 이후 최고치인 1,340원대까지 상승한 이후, 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와 美 국채금리 반락 등으로 다시 1,320원대로 하락
(8월 14일 1,330.9원 → 8월 25일 1,325.2원, -5.7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023				
	4/4	1/4	2/4	3/4	4/4	1/4	6월	7월	8.25일
국고채(3년)	1.80	2.66	3.55	4.19	3.72	3.27	3.66	3.68	3.79
회사채(3년,AA-)	2.42	3.34	4.36	5.28	5.23	4.07	4.47	4.47	4.55
CD(91일)	1.29	1.51	2.04	3.24	3.98	3.59	3.75	3.74	3.69
CP(91일)	1.56	1.66	2.34	3.30	5.28	4.01	4.02	4.03	4.03
원/달러	1,188.8	1,212.1	1,298.4	1,430.2	1,264.5	1,301.9	1,317.7	1,274.6	1,325.2
원/100엔	1,030.2	992.7	946.5	993.3	953.2	981.4	907.0	908.3	906.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6월중 전년동월비 -5.8%, 전월비 -1.1%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10.8%), 기타운송장비(10.4%)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15.9%), 전자부품(-12.2%), 화학제품(-10.4%), 섬유제품(-6.4%), 1차금속(-3.8%), 기계장비(-0.9%)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5.8%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5.9%)와 중공업(-5.7%), 경공업(-6.4%)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전년동월비 감소폭은 다소 둔화

- 전월비 기준으로는 반도체(3.6%)와 전자부품(9.7%), 기계장비(4.4%), 화학제품(2.3%) 등에서 증가한 반면, 자동차(-12.9%), 석유정제(-14.6%), 섬유제품(1.3%), 1차금속(-0.6%)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감소 전환(-1.1%)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99.9)는 반도체,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2.3%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0.3%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1.4%로 전월에 이어 11.3%p 추가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2분기 기준 재고 증가폭(10.0% → 3.8%,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과 출하 감소폭(-6.8% → -2.1%)이 동반 축소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9%로 전월보다 0.9%p 하락

□ 서비스업생산 : 6월중 전년동월비 +3.5%, 전월비 +0.5%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4.5%), 정보통신(-3.7%) 등 업종만이 감소하고, 도소매(1.1%)와 운수·창고(7.4%), 전문·과학·기술서비스(4.0%),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3.1%)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3.5% 증가

- 전월비로는 도소매(0.6%), 숙박·음식점(0.5%),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1.3%)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고, 운수·창고(-0.9%), 정보통신(-0.5%), 전문·과학·기술서비스(-0.6%) 등 업종에서 소폭 감소하면서 4개월 만에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1.7%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7.9%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8.2	109.7	107.1	99.5	104.8	101.6	104.8	108.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2	1.4	-6.4	-9.7	-7.4	-9.1	-7.6	-5.6	-1.0
제조업 (원지수)	9,569.5	108.4	109.9	107.1	98.8	105.3	102.0	105.3	108.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4	1.4	-6.7	-10.0	-7.7	-9.3	-7.9	-5.8	-1.1
섬 유	113.4	2.0	-3.5	-10.1	-7.8	-8.8	-9.8	-10.2	-6.4	-1.3
화 학	854.2	8.6	-9.9	-20.1	-20.4	-16.0	-20.1	-16.7	-10.4	2.3
철 강	496.6	5.2	-8.5	-23.3	-6.5	-2.4	-1.4	-2.9	-2.8	0.7
반도체	2,023.8	26.8	7.6	-19.8	-33.8	-18.6	-21.6	-18.7	-15.9	3.6
컴퓨터, 주변장치	32.4	27.5	11.0	10.8	0.7	-14.7	-20.3	-11.5	-12.3	-10.3
통신, 방송장비	171.0	23.5	-5.1	-1.1	17.6	-12.6	-3.6	-18.3	-16.7	-4.0
의료, 정밀, 광학	217.2	17.8	6.6	5.9	-4.3	-13.8	-16.1	-17.1	-8.1	1.3
기계, 장비	737.3	12.1	1.1	5.4	0.7	-3.7	-4.2	-6.3	-0.9	4.4
자동차	987.5	6.3	9.1	17.5	21.6	15.4	16.9	18.7	10.8	-12.9
조 선	66.0	-7.2	20.7	23.4	19.6	4.6	7.5	-1.0	7.7	5.4
- 중 공 업	-	9.9	1.5	-7.3	-10.7	-7.5	-9.3	-7.6	-5.7	-0.9
- 경 공 업	-	1.3	0.4	-4.0	-5.6	-8.4	-9.6	-9.4	-6.4	-2.3
- 제조업ICT	-	19.3	2.2	-19.7	-30.5	-19.2	-22.4	-19.3	-15.9	4.1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5.0	112.0	117.9	111.8	115.7	113.9	114.9	118.2	-
전년동기비 증감률	-	5.0	6.7	5.8	6.4	2.8	2.9	1.9	3.5	0.5
도소매	193.9	4.3	2.7	1.1	2.8	-0.9	-2.6	-1.4	1.1	0.6
운수및창고	78.4	4.2	17.7	17.7	17.3	9.3	12.3	8.4	7.4	-0.9
숙박및음식점	44.4	1.9	16.9	9.8	16.3	-2.7	1.7	-4.9	-4.5	0.5
정보통신	88.9	12.2	1.7	-1.0	-1.7	-4.0	-3.1	-5.4	-3.7	-0.5
금융및보험	167.4	8.0	8.4	12.5	10.7	9.2	9.4	8.3	10.1	3.5
부동산	38.7	2.3	8.0	6.0	4.1	3.2	2.5	3.2	3.7	-2.2
전문·과학및기술	95.8	2.8	2.0	-0.3	1.8	2.3	1.1	1.7	4.0	-0.6
사업시설관리 등	53.6	2.3	5.2	4.2	5.6	3.7	5.4	2.9	3.1	1.3
교 육	73.5	1.5	1.2	0.3	1.1	0.2	-0.6	-0.1	1.2	0.7
보건및사회복지	111.3	5.1	7.2	6.3	5.7	3.5	3.1	3.9	3.5	-1.4
예술·스포츠및여가	17.5	15.4	43.6	26.6	20.8	7.0	12.7	0.0	9.2	5.7
협회수리및개인	24.0	1.9	4.4	5.9	13.8	5.6	4.6	3.8	8.1	-0.3
수도·하수및폐기물	12.6	2.3	-4.7	-4.8	0.6	-1.7	-4.2	-2.2	1.5	-2.1
- ICT서비스업	-	6.2	5.5	2.4	2.2	0.6	-0.6	0.6	1.7	7.9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5. 고용

□ 취업자 수 : 7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0.7% 증가

○ 지난 7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동반 확대된 가운데 SOC·기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하락(1.2% → 0.7%,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감소세(-0.8%)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0.8% → -2.5%)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4개월 연속 둔화(1.6% → 1.3%)
-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2.8% → -2.0%)되고 있으며,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증가세도 3개월 연속 둔화(1.6% → 1.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0.7% → 1.2%),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4.5% → 5.3%),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1.1% → 1.4%)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에도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7% → 4.8%)과 정보통신업(5.4% → 4.9%)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인해 전체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2.2%)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8%로서 연초(2023년 1월 2.9%) 이후 최고치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전 산업	27,273	28,089	28,216	27,767	28,693	28,223	28,432	28,835	28,812	28,686
전년동기비	1.4	3.0	2.2	1.5	1.2	1.7	1.3	1.2	1.2	0.7
농림·어업	0.9	4.6	2.0	-1.6	-0.3	2.1	0.8	-0.9	-0.8	-2.5
제조업	-0.2	3.1	2.9	-0.8	-1.1	-1.1	-2.1	-0.9	-0.2	-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2.1	2.1	1.8	2.3	2.0	1.8	1.6	1.3
건설업	3.7	1.6	0.2	-1.0	-2.4	-1.0	-1.5	-3.0	-2.8	-2.0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2.4	2.2	1.8	2.0	2.0	1.8	1.6	1.3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1.0	1.4	1.3	2.7	1.2	1.5	1.1	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0	3.9	2.6	2.9	2.8	2.8	3.0	2.9	2.6	2.2
실업률 (계절조정, %)	3.7	2.9	2.9	2.7	2.6	2.7	2.6	2.5	2.6	2.8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7월 수출 16.4% 감소, 수입 25.4% 감소, 무역수지 약 17억 달러 흑자

○ 지난 7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6.4% 감소한 503억 달러, 수입도 25.4% 감소한 487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17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IT업황의 부진 지속과 계절적 요인(하계 휴가)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반도체·컴퓨터·선박 등 다수 품목에서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지역별로는 중국·베트남 등이 對세계 수입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체 기준 전년동월비 16.5% 감소

- 수입은 전년동기비 낮은 유가 등으로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감소(-47.0%)하고, 반도체·철강 등의 수입도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감소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0.5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22.0% 낮은 수준이고, 도입물량이 20.8%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45.8% 감소한 약 62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수출	6,444 (25.7)	6,836 (6.1)	1,590 (-10.0)	1,513 (-12.7)	1,558 (-12.0)	549 (-13.9)	495 (-14.4)	521 (-15.4)	542 (-6.0)	503 (-16.4)
수입	6,151 (31.5)	7,314 (18.9)	1,776 (3.1)	1,740 (-2.2)	1,596 (-13.0)	597 (-6.5)	522 (-13.3)	543 (-14.0)	531 (-11.7)	487 (-25.4)
무역수지	293	-478	-186	-227	-38	-47	-27	-22	11	1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자동차·기계·가전 수출 증가, 13대 품목중 10개 품목 수출 동반 감소

○ 반도체 : 서버를 제외하고 PC·모바일 등 IT 기업들의 재고조정이 완료되면서 주문이 소폭 증가한 반면에, 비메모리에서 IT수요 및 주문량 감소에 따른 파운드리 가동률의 하락, 낮은 메모리 가격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 **자동차** : 북미·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한국産 친환경차·SUV 수출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인도·아세안 등지에서의 특화모델 출시 등으로 글로벌 점유율이 지속 상승하면서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EU 현지 공장의 전기차 생산 부품 조달 및 역내 한국産 브랜드 점유율의 상승,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완화 및 대기수요 해소에 따른 판매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계절 요인에도 수출이 보합세
- **선박류** : 高부가가치 선박(컨테이너선·LNG선) 수출이 호조세이나, 해양플랜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전환
- **디스플레이** :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OLED 수요 회복의 지연과 모바일 수요 하락 및 LCD 생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세
- **무선통신기기** : 고급형 모델 판매 비중 확대에 따른 판매 가격 및 단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으로 완제품·부품 출하량이 모두 감소하면서 '22년 4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
- **철강** : 계절적 요인(여름 비수기 진입)과 수요 정체로 인한 시황 침체 지속, 주요 철강재 수출단가 하락 및 가격 약세로 인해 수출이 재차 감소 전환
- **섬유** : 중국 등 아시아 내 한국産 의류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나, 베트남 등 주요 소싱국에 대한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전년동기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제품** : 항공유 수요 회복으로 미국 등 일부 지역으로의 수출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계 정기보수 영향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와 국제유가의 전년 동기비 낮은 수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화학** : 시황 회복 둔화 및 정기보수 등의 영향에 따른 수출물량의 감소, 국제유가 약세 및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세
- **일반기계** : 美·EU 등지의 인프라 투자사업 확대에 따른 산업기계 수출 증가와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으로 인한 중동·인도 등지로의 기계 수출 확대 등

로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최근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로 주요 품목들의 가격이 전년동기비 하락한 영향에도, 미국 등 주요국들의 주택경기 회복세로 대형가전 및 프리미엄 가전 수요 등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점진적인 수요 회복과 주요 업체들의 감산 등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 수요 위축과 서버 투자 재개 지연 등으로 인해 낸드·SSD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수출이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지속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자동차	24.2	16.4	29.0	43.9	49.0	63.6	40.3	49.2	58.3	15.0
자동차부품	22.2	2.4	-1.1	-3.7	1.0	-5.6	-1.7	-0.8	5.5	-0.5
선박류	16.4	-20.9	-22.6	2.0	21.3	-26.0	59.2	-47.8	98.9	-30.9
일반기계	4.6	2.0	-3.1	-2.0	5.6	-0.9	7.7	1.4	7.9	3.2
철 강	36.9	5.7	-17.6	-15.8	-5.7	-10.9	-10.9	-8.9	3.1	-10.4
석유화학	54.8	-1.4	-25.1	-22.3	-24.2	-24.5	-23.5	-26.5	-22.2	-24.4
석유제품	57.7	64.9	18.0	-0.5	-34.8	-18.6	-28.9	-34.9	-40.3	-41.9
섬 유	14.0	-4.0	-18.7	-15.2	-11.1	-12.1	-15.0	-15.0	-2.7	-15.4
가 전	24.0	-7.4	-24.0	-8.5	-7.5	-8.3	-10.3	-13.7	3.3	2.5
무선통신기기	45.9	-10.4	-19.0	-13.4	-20.8	-42.5	-34.3	-12.1	-12.3	-15.3
컴퓨터	24.7	-4.7	-41.0	-61.9	-61.6	-57.6	-73.3	-57.5	-53.5	-33.4
반도체	29.0	1.0	-25.8	-40.0	-34.8	-34.5	-41.0	-36.2	-28.0	-33.6
디스플레이	18.9	-1.1	-20.2	-39.5	-16.5	-41.6	-29.3	-7.4	-11.1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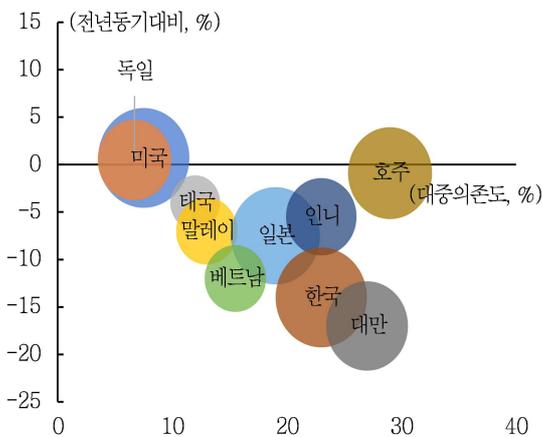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록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및 시사점
-----------	---------------------------

한국은행(2023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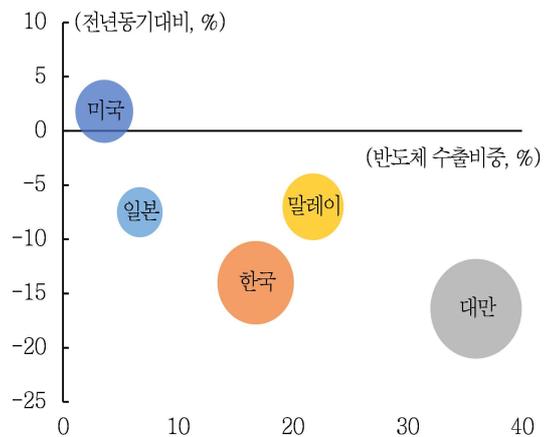
- 글로벌 고금리 기조의 지속과 서비스로의 소비 리밸런싱 영향으로 둔화되었던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2분기 들어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조짐
 - 최근에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도 일부 품목과 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는 등 품목별·지역별로 차별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중국 의존도 및 IT 의존도가 비교적 높아 수출 부진 정도가 큰 편**
- 최근의 수출 부진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 위축에 따른 글로벌 공통 현상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및 IT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더욱 현저
- 다만, 2분기 이후 글로벌 제조업 경기와 IT 업황의 추가 위축이 제약
 - 반도체 전방산업의 재고 정상화, AI 서버 수요 증대 등에 따른 IT 경기 부진 완화로 수출 전망의 완만한 개선 흐름이 예상

〈 對중국 의존도(22년)와 수출 증가율 〉 〈 반도체 의존도(21년)와 수출 증가율 〉



자료 : CEIC.

- 주 1) 2023년 1~4월 누계 전년동기비 증가율.
- 주 2) 원의 크기는 대중 수출액(달러 기준).



자료 : CEIC, UNComtrade.

- 주 1) 2023년 1~4월 누계 전년동기비 증가율.
- 주 2) 원의 크기는 반도체 수출액(달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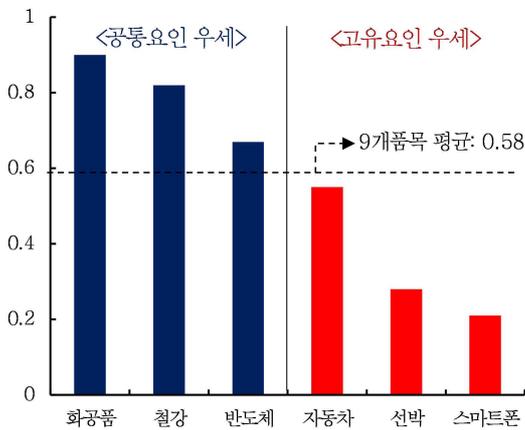
□ **품목별 차별화 : IT 부진 vs. 자동차·선박 양호**

- 자동차·선박 등 비IT품목 호조로 최대 수출 품목이 반도체 → 자동차로 변화
- 품목별 차별화 현상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품목일수록 부진하고, 개별 고유 요인의 영향이 큰 품목에서 호조를 보이는 것에 기인
 - 최근 반도체는 리오프닝에 따른 비대면 재화 특수의 소멸로 재고 누증·수출 단가 급락으로 인해 부진한 반면, 자동차는 친환경차 수요의 추세적인 확대·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 차질 개선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

□ 지역별 차별화 : 對중국·아세안 부진 vs. 對미국·EU·중동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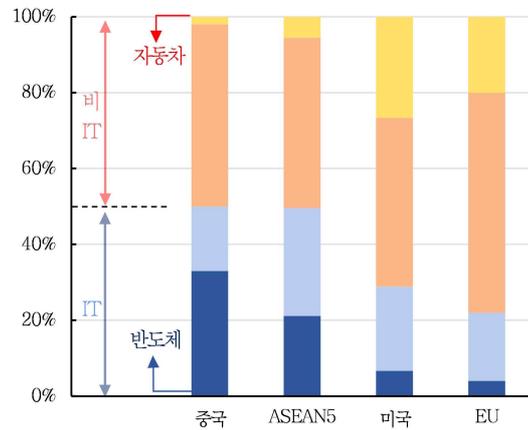
- 對중국·아세안 수출이 부진한 반면, 對미국·EU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
- 지역별 차별화 양상은 지역별 수출품목 구조의 차이에 기인
 - 對중국·아세안 수출에서 IT 비중이 각각 51.0%, 46.3%로 對미국(28.2%) 및 對EU(21.8%)보다도 크게 높아 IT경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
- 지역별 수출 차별화에는 경기적 요인·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對중국 수출의 경우 중국 봉쇄 조치 이후인 2022년 4~12월 대비 2023년 1~4월 수출 감소의 65%가 중국 자체의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경기적 요인에 기인하고, 35%는 중국 내 점유율 하락과 관련한 경쟁력 요인에 기인
 - 반면 對미국 수출의 경우 경쟁력이 오히려 수출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주성분 분석 결과 〉



자료 : 관세청, 자체 추정.
주 : 우리나라 수출 9개 품목의 주성분 분석.

〈 주요 수출 지역별 품목 구조 〉



자료 : 관세청.
주 : 2022년 기준.

□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우리 수출 흐름에는 경기적·구조적 요인의 복합적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향후 IT경기 부진의 완화로 수출 개선, 품목별·지역별 차별화 축소 등이 예상되나, 하반기 이후 IT경기 부진이 완화되어도 수출의 큰 반등은 어려울 것
 -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를 감안하면, 글로벌 IT경기의 회복시 對중국·아세안 수출의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자동차 수출은 대기수요 축소에도 對미국·EU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
 - 국별 산업구조 및 경쟁력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수출이 과거와 같은 큰 폭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효과적 대응 여부에 따라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출구조 다변화, 기술경쟁력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8.28일)	(8.29일)	(8.30일)	(8.31일)	(9.1일)
 6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7월 실업률  8월 소비자신뢰지수	 7월 무역수지(수)  7월 경제제임지수  23.2분기 실질GDP (수정치)	 7월 산업생산(잠)  7월 소매판매(잠)  8월 소비자물가(예)  7월 실업률  7월 개인소비  7월 산업활동동향	 8월 ISM 제조업지수  8월 고용보고서  8월 수출입통계
(9.4일)	(9.5일)	(9.6일)	(9.7일)	(9.8일)
	 8월 소비자물가  23.2분기 실질GDP (잠정치)	 7월 소매판매  8월 ISM 서비스업지수  7월 무역수지	 8월 수출입통계  7월 경기선행지수 (잠정치)  23.2분기 실질GDP (확정치)	 23.2분기 실질GDP (수정치)
				(9.9일)
				 8월 소비자물가
(9.11일)	(9.12일)	(9.13일)	(9.14일)	(9.15일)
		 7월 산업생산  8월 소비자물가  8월 고용동향	 7월 기계수주  7월 산업생산(수)  ECB 통화정책회의  8월 소매판매  8월 소비자물가	 8월 산업생산  8월 소매판매  8월 고정투자  7월 소매판매(수)  7월 수출입통계  8월 산업생산
(9.18일)	(9.19일)	(9.20일)	(9.21일)	(9.22일)
	 8월 소비자물가(수)  연준 FOMC(-9.20일)	 8월 무역수지(잠)  8월 생산자물가	 BOJ 통화정책회의  8월 경기선행지수	 8월 소비자물가